

평안을 주노라

요한 20:19-23

April 19, 2020

들어가는 말:

오늘을 여기 미국에서는 “Low Sunday” 라고 합니다. 부활 주일 후에, 예배 출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영어 회중 교회 목회하는 동역자들이, 이번 주간에 휴가를 많이들 갑니다. 오늘 부활 주일 지나고 바로 다음 주일, 오늘은, 또 “거룩한 유머 주일. Holy Humor Sunday” 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유머 주일”로 지킵니다.

사진 보세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집집마다 교회가 생겨났다.” 또 하나 보세요, 로마 병정이, 돌무덤을 막고 서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자가 격리 기간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나오지 말라는 말이지요. 하하하

왜 “성 유머” 주일로 지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멋드러지게 우주를 흔들고, 세상 지각을 흔들고, 우리들을 흔든, 큰 유머, 큰 익살, 큰 해학이 넘치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질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신 첫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서서 하는 말이, 두 손을 활짝 펴지면서, “자-잔”

하나님께서 “자-잔” 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유쾌하고 큰 소리 내시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와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활 사건 후에, 우하하하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됩니까?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는 머리로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여,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시어,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하셨습니다. 익살스러운 하나님. 유머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웃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웃습니다. 놀라하면서, 배를 잡고 마루바닥에서 데굴 데굴 구르면서 웃게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믿겨지지 않는 사건 앞에, 와우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웃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믿는다고, 부활사건이 생기고, 믿지 않는다고 부활 사건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사건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요즘 말대로, 대박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백성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고, 세상 살이도 달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인 랭귀지로, 가운데 손가락과 인지를 치켜 올리셨을 겁니다. 싸인 랭귀지로, 양 손을 앞으로 모아 손가락들이 만나게 하고, 양쪽으로 벌렸다가 (검지와 인지로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다시 모으고 그리고 양손을 하늘 보게하면서 좌우 앞쪽으로 펼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 주일 다음 날이 월요일 저녁에, 문들을 닫아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캄캄하였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연상시킵니다. 집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요즘 미국에서는 가정 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술 소비량이 대거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 졌다고 하지요? 불안한 나머지.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지켜야 하겠다는 심산이지요.

특히, 경제 질서가 뒤죽 박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 성장율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 첫째 날 제자들을 찾으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움에 눌린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하며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고통가운데 누리는 기쁨이고 자유로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불안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평안하듯이, 무슨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폭 젖어서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되어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 장 6 절-7 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흥흥한 요즘, 더욱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믿음의 생활에 정진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받으시고, 그 뿐 아니라, 그렇게 아끼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저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희들 어떻게 된거야? 너희들 다 어디갔었어?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었냐? 참 섭섭하다. 아니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다긋쳐 밀어 붙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들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누구이든지간에,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누구를 배반을 했던지,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였든지, 누구에게 실망했던지, 어떤 사건으로 절망했던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만,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과거 이런 저런 일들과 관계 속에서, 갖게 된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용서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그러하듯이,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 한 명이, “너랑 다시는 말을 섞나보라!” 하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같이 놀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시 놀 수 있냐고. 대답하기를, “나하고 철수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잘 잊으십니다. 아니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오와 죄를, 과거를 들먹이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먹이는 거지요. 주님께서서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 절하하고 확대하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은,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

그리고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네 발을 씻겨 주었듯이, 서로 발을 씻어라. 섬겼듯이, 섬겨라.” 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용납하여 주었듯이, 서로 용납하여라.”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부활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용서하여라. 서로 용서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용서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다 라는 동사가 그리스 원어로는 “카리조마이” charizomai 라고 합니다. 카리스 charis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카리스 라는 말은 그레이스, 은혜 라는 뜻입니다. “조건없이 베푸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다. 죄를 사하여 준다” 은혜를 베풀어준다.

신약에 27 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베소서 4 장 32 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 장 13 절 -14 절에 보며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 유대 전통에 따르면, 누구 내게 죄를 범하면 세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만,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7 번까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지요?” 한 것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마 18:21~22)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는 몇번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딸이 친구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샤룻에게 화를 내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샤룻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도록 힘 좀 써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잠도 제대로 못자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아이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부터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함 받고 사해 주고, 사해 줌으로 사함 받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용서받고, 용서 하고, 용서 하고 용서 받는 삶입니다. 음양 사상이 엇보입니다. 음양이 균형을 이룰 때에,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 받고, 용서 하고. 이것이 우리 부활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4

그런데 힘이 들어요. 그래요 힘이 듭니다. 용서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용서하라는 분부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맘과 영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라. 깨진 몸, 아픈 맘이 회복하게 되리라. 내 메마른 영혼이 단비로 충만하게 되리라. 네 삶이 회생하리라.

성령이 충만하여 회복된 몸과 맘과 영혼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회복되면, 용서하는 능력, 은혜 베푸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지를 깨달아 믿게 되고, 은혜 베푸는 자리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백성들은, Easter People 은 매일, “성령이여 오셔서 내게 오셔서. 녹이시고, 조물하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소서.” 찬송, 기도합니다.

5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도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부활 백성들입니다. 용서의 사역, 곧 은혜 베푸는 사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길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76 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22 억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23 억 크리스찬들, 여러 인종, 여러 언어, 여러 문화권에 흩어져 있는 부활 백성들이,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사랑하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Easter People 은 매일, “성령이여 오셔서 내게 오셔서. 녹이시고, 조물하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소서.” 찬송, 기도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에, 우리가 사는 동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